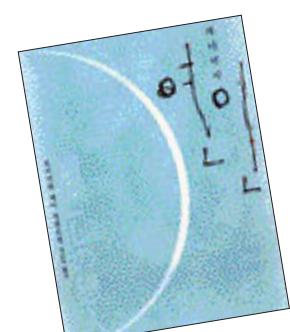


[소설 원작 영화 충무로 돌풍]

파상공세… 일본이 몰려온다

다양한 소재·풍부한 감수성 한국 팬 자극
‘어깨 너머의 연인’ ‘바르게 살자’ 등 주목

이경규가 제작자로 참여해 화제가 된 영화 ‘복면달호’는 ‘사무라이 빅센’으로 유명한 일본 작가 사이토 히로시의 ‘사란큐의 엔카의 꽃길’을 원작으로 한 작품.

6월 개봉을 목표로 촬영중인 스클립터들 ‘검은집’ 역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를 소재로 한 동명의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1997년 일본에서 출간돼 100만부 이상 판매되고 제4회 일본 홍보소설 대상을 받은 ‘검은꽃’은 일본의 유명 공포 소설 작가인 기시 유스케의 작품으로 이미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바 있다.

최근 방한한 기시 유스케는 충무로가 주목하는 황정민이 보험회사 직원으로 출연하는 ‘검은꽃’에 여행자 보험을 상담하는 일본 여행객으로 카메오 출연하기도 해 스크린에서 작가의 얼굴도 볼 수 있다.

촬영을 마치고 개봉 대기 중인 ‘어깨 너머의 연인’은 제126회 나오기문학상 수상작인 유이카와 케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이미연과 이태란이 주연을 맡았다. 연애와 결혼에 대해 극과 극의 입장장을 지녔던 32세 동갑내기 싱글과 더블, 두 여자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보는 영화다.

정재영이 주연을 맡은 ‘바르게 살자’ 역시 ‘노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일본 소설과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장진 감독이 각색을 담당했다.

세 소년과 할아버지의 만남을 그린 일본소설 ‘여름이 준 선물’은 ‘내 마음의 풍금’을 만든 이영재 감독이 한창 작업중이며 소설 ‘상흔’을 영화화한 이완·송창의 주연의 ‘소년은 울지 않는다’는 일본 전후 세대 고아들의 모습을 6·25 직후 전쟁 고아들로 치환해 촬영하고 있다.

그밖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애쿠니 가오리의 ‘반짝 반짝 빛나는’과 ‘철도원’ ‘파이란’으로 유명한 아사다 지로의 ‘프리즌 호텔’, 마쓰오 유미의 미스터리 멜로 ‘사랑, 사랑하고 있습니다’도 영화화를 준비중이다.

충무로가 일본 소설에 열광하는 이유는 평면적인 국내 소설들과 달리 다양한 소재와 독특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본소설을 입도선매하는 출판계의 과열 양상이 영화계까지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영화계가 일본 만화, 영화, 드라마는 물론이고 국내 만화와 연극, 소설 등 ‘기성품’에서 소재를 찾는 경향이 많아 참신한 창작 시나리오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스릴러들 ‘검은집’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를 소재로 한 동명의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황정민 주연.



개봉 대기 중인 ‘어깨 너머의 연인’. 이미연(오른쪽)과 이태란이 주연을 맡았다



윤진서 ‘두 사람이다’ 캐스팅

영화 ‘바람피기 좋은 날’로 호평받은 윤진서(사진)가 공포 스클립터 ‘두 사람이다’(제작 모가비픽쳐스)에 캐스팅됐다.

‘두 사람이다’는 강경옥 씨의 동명만화를 각색한 작품, 중편 만화로 한집안에 드리워진 저주를 풀기 위한 여주인공과 주변 사람들의 미묘한 관계를 담고 있다.

일찌감치 영화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만화 원작으로 ‘선물’, ‘작업의 정석’을 만든 오기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윤진서는 가인 역을 맡았고, ‘클래식’, ‘새드무비’ ‘사랑을 놓치다’ 등에 출연한 이기우는 가인의 옆에서 항상 힘이 되는 남자친구 혼중 역을 맡았다.

/연합뉴스

주목! 이영화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985년 출간후 전세계 45개 언어로 번역, 1천500만부 이상 판매된 ‘좀머씨 이야기’의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작품.

18세기 프랑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에서 세상의 모든 향기를 기억하는 천재성을 가진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가 태어난다.

자신의 몸에서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여인의 향기…세기의 잔혹사



그르누이의 인생 최대 과제는 세상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내는 것. 우연히 만난 여인

로라의 향에 취해 여인들의 향에 집착하게 된 그는 향수 제조자 주세페 발디니에게 향수 제조법을 배운 뒤 여인들의 향을 유리병에 담으려 한다. 여인의 피부와 머리카락에 뱀 향을 액체로 만들기 위해 그는 결국 13명의 여인을 살해하는데..

18세기 프랑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화면이 눈길을 끌며 벤 위쇼, 더스틴 호프만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15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	상영극장
넘버 23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프리마스 제일, 하미, 스티박스, 씨너스 전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베스트셀러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15세 관람가.
수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최양일 감독과 지진희가 호흡을 맞춘 액션물, 18세 관람가.
브레이크 압(이별후애)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프리마스 제일, 하미, 스티박스, 씨너스 전대
내 여자 친구의 남자친구	롯데(첨단), 하미
빼꼼의 마그잔 여행	CGV(첨단)
300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마스 제일, 하미, 스티박스, 씨너스 전대
쏜다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소시민들의 일탈을 그린 영화로 김수로와 김우성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일루셔니스트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마술이 소재인 미스터리, 무등, CGV(상무·첨단), 프리마스 제일, 하미, 스티박스, 씨너스 전대, 엔터
그 여자 작자 그 남자 작곡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휴 그랜트, 드류 베리모어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12세 관람가.
1번기의 기적	롯데(첨단),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프리마스 제일, 하미
리틀러너	롯데(첨단), CGV(상무·첨단), 하미
페인티드 베일	메가박스, CGV(상무·첨단)
복면달호	엔터, 하미

광주 CBS 일본선교여행

일본선교를 위한 비전과 도전

- 모집인원 80명(선착순)
- 참가금액 1회 55만원, 교회-스페셜 57만원(선수기 당첨)
- 예상금 100,000원(예비회원시 확정)
- 입금계좌 바투문號 130-177-00912-08480-기독교 광주방문
- 접수문항 052) 276-8500 ~ ~
- 주최 광주CBS

여관구비서

- 여관 구비는 1회 ~ 2회는 1회

광주VISA

비자면제

포장내역

- 출국일: 2007. 4. 15. ~ 4. 22.
- 입국일: 2007. 4. 22. ~ 4. 29.
- 출국 항공편: 2007. 4. 15. KAL 155



여관비와 여관구비는 1회 ~ 2회는 1회

여관비와 여관구비는 1회 ~ 2회는 1회